

제15회 한글서예한마당

전국 대표작가 한글 서예 초대전

- 명칭** : 제15회 한글서예한마당 전국 대표작가 한글서예 초대전
- 목적** : 한글 서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예술적 발전을 이루며, 한글 산업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함.
- 내용**
 - 전국 대표 서예가의 작품을 통하여 한글서예의 서체별 예술적 미감과 분류체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서예작품을 제작 전시함.
 - 제시하는 고전 서체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각 서체별 특징이 드러나는 창작 또는 임시작품 제작(국.한 혼서 포함) 및 도록 발간.
- 작품 내용과 형식** : 내용과 형식(전통 서사 방식 외에 가로 쓰기, 띄어 쓰기, 글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협서나 문장부호 함께 쓰기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은 자유며, 행사 취지에 맞는 서예, 문인화, 전각으로 한글 서체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
- 전시 기간** : 2017. 10. 7.(토) ~ 10. 15.(일) (9일간)
- 전시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2층 전관
- 개막식** : 10월 9일(한글날) 11:20 또는 14:00(한글날 경축식 후)
- 작품 규격** : 가로 50×세로 140 cm의 세로 작품.
- 작품 제출 기한** : 2017. 8. 17.(목)까지.
- 출품료** : 없음.(본회 부담으로 일괄 족자표구하여, 전시 뒤 주소지로 정성껏 만든 작품집과 함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작품 및 자료 보내실 곳〉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27 원방빌딩 5층 사단법인 한국서체연구회
이사장 허경무 010-3886-1231 / hhannae@hanmail.net

-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서체연구회, 부산한글학회
 - 주 관 : (사)한국서체연구회 행사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글학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 KNN방송, 부산문화재단

출 품 표

제15회 한글서예한마당 전국 대표작가 한글 서예 초대전

〈인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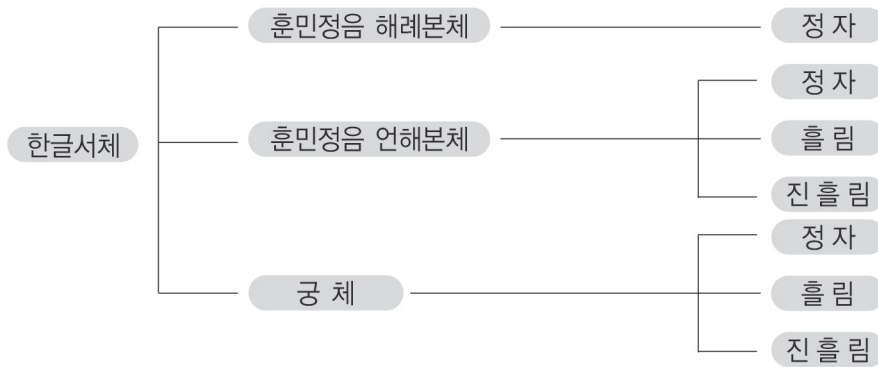
이 출품표와
인물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 | | | | |
|-------------|--|---------------------|-------------------|---------------------|-------|
| 출 품 자 | 성 명 | 한글 | 한문 | 아호 | |
| | 생년월일 | (만 세) | | 성별 | 남 / 여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연락할 곳 | 핸드폰 : 직장 : () | 자택 : () 이메일 : | | |
| 출품 서체 | ① 해례본체 ② 궁체 정자 ③ 궁체 흘림 ④ 궁체 진흘림 ⑤ 언해본체 정자 ⑥ 언해본체 흘림 ⑦ 언해본체 진흘림 | | | | |
| 작품 명제 | 한글 한문 | 작품규격(통일) (가로×세로) | | 가로 50cm 세로 140cm | |
| 제작 의도 내용 | | | | | |
| 작가 대표 약력 |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한글 서체의 분류와 특징

조선 시대 한글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서체를 유형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참고 도판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한글 서체의 유형별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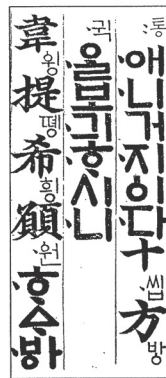
1. 훈민정음 해례본체(줄여 해례본체)

한글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창제된 글자이며, 문자로서 형태적 특성이 있다. 초기는 한글 문자의 전형으로서 직선, 원 둥근 점으로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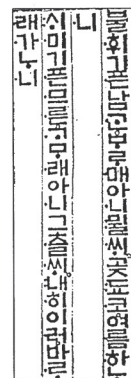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이후 같은 서체의 다른 간본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한글 서체를 이루는 합자 자형은 정방형이 기본이었다. 획은 굵기가 같고 글자의 표정이 엄정하여 시각성이 높다. 흐름축은 중앙이고 글자는 초, 중, 종성의 차례대로 구성하되 날자를 합자하면서 구성 위치는 반드시 앞 구조의 중앙이었다. 그래서 자형이 엄정하고 고정적이다. 디자인하여 판각이나 활자로만 활용되었는데 이 서체는 제자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것이 특성이다. 해례본체는 비록 붓글씨로 전하지는 않지만 서예술적 미감과 서사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자형적 특성이 있으므로 서체의 하나로 분류한다.



① 훈민정음 해례본



② 월인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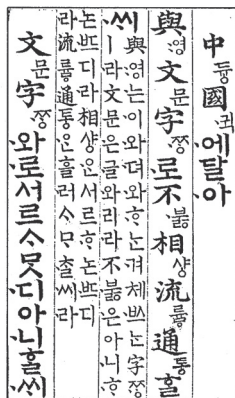


③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해례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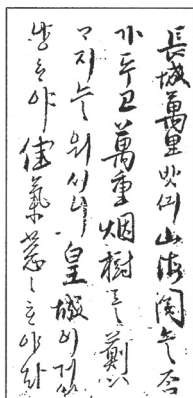
2. 훈민정음 언해본체(줄여 언해본체) - 정자, 흘림, 진흘림

언해본체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간본의 한글은 붓으로 필서하여 판각한 것으로 실용성이 바탕이 되었다. 해례본체의 전형적인 자형에서 변모하여, 획은 한자의 해서나 행서와 닮은 획이 많고, 획 공간의 다양한 활용으로 조형성이 강조되었다. 흘림은 율동성이 강하고, 붓으로 필서하면서 가로 서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세로 모음이 길어지며 흐름축은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자소의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도 획형의 변화가 많다. 한자와 혼서하기도 하고 획이나 자 간의 연결과 동선 축약에 의해 정자, 흘림, 진흘림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글자의 대소, 장단, 강약이 많고 자형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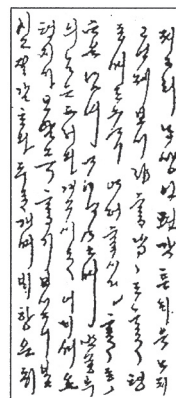
① 훈민정음 언해본

<언해본체 정자>



② 정철 글씨

<언해본체 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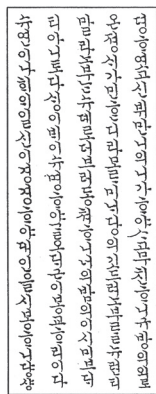


③ 김정희 글씨

<언해본체 진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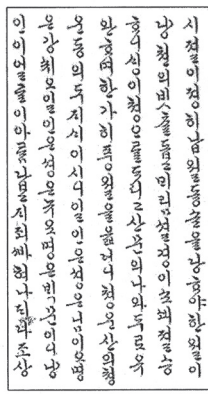
3. 궁체 - 정자, 흘림, 진흘림

궁체는 생성과정에서, 궁중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여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배경으로 창안된 서체이다. 한글 낱자 초, 중 종성자의 놓이는 자리와 서사 순서에 따라 구성의 원칙이 뚜렷하고 자형도 다양하다. 끝이 뾰족한 붓으로 필서했을 때의 특성이 잘 살려진 이 궁체는, 또 획의 시작과 마침이 노봉이 많으며, 글자는 오른쪽 흐름 축에 반드시 맞추어 쓰는 것이 궁체의 특성이다. 글자는 획 간의 공간을 일정하게 구성함으로써 글자의 길이가 다양한 세로글씨 체제로 발전한 것이 특성이며, 정자, 흘림, 진흘림은 획과 자간의 연결과 서선의 축약 정도가 달라서 이로써 다양한 자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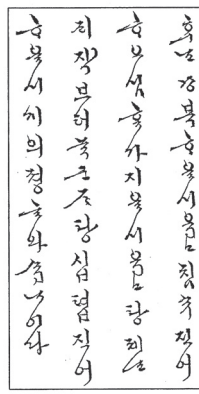
① 옥원동회원

<궁체 정자>



② 낙성비룡

<궁체 흘림>



③ 서기이씨 글씨

<궁체 진흘림>